

보도시점 2026. 9. 9.(수) 09:00 배포 2026. 9. 9.(수) 09:00

## '26.8월 취업자수는 18.4만명 증가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

-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, 제조·건설업 감소폭 축소, 농림어업 감소폭 확대
- 청년 쉬었음은 7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
-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뒷받침 + 고용 취약부문·부진업종 개선 위해 총력 대응

① '26.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.3%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, 15~64세 고용률은 70.4%로 전년대비 +0.5%p 상승했다. 경제활동참가율(64.6%)과 실업률(2.0%)은 모두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.

\* 8월 고용지표('25→'26년, %): <고용률> 63.3 → **63.3** <경활률> 64.6 → **64.6** <실업률> 2.0 → **2.0**

○ 연령별로는 30대(81.1%, +0.3%p) · 40대(80.7%, +0.8%p) · 50대(78.8%, +1.3%p) 고용률이 상승했고, 60세 이상(47.6%, △0.3%p)은 하락했다.

- 청년 고용률(44.1%, △1.0%p)은 하락세를 지속했으나, 쉬었음 인구는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.

\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8)44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**(8)39.5**  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8)△1.4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(7)△6.9 **(8)△5.1**

○ 8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과 경활률은 역대 공동 1위이며, 15~64세 고용률은 역대 1위를 기록했다.

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8.4만명 증가했으며, 계절조정 전월비로는 8.2만명 증가했다.

\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8)16.6 ('26.2)23.4 (3)20.6 (4)7.4 (5)△4.0 (6)6.3 (7)10.8 **(8)18.4**

○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경우, 전문·과학·기술 서비스업(△4.4→△0.5만명) 감소폭이 축소되고, 보건복지업(17.3→18.6만명), 예술·여가(4.8→7.3만명) 등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.

\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4)23.9 ('25)49.2 ('26.1/4)31.5 (2/4)25.4 (6)30.7 (7)29.5 **(8)34.5**

- 제조업( $\Delta 6.8 \rightarrow \Delta 3.8$ 만명)은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, 건설업( $\Delta 5.7 \rightarrow \Delta 3.2$ 만명)은 자재수급 개선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.
- 지위별로는 상용직( $7.1 \rightarrow 18.0$ 만명) 증가폭 확대, 일용직( $\Delta 4.1 \rightarrow \Delta 1.7$ 만명) 감소폭 축소되었으나, 임시직( $\Delta 4.0 \rightarrow \Delta 5.0$ 만명)은 감소폭이 확대되었다.
- ③ 8월 취업자수는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며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 증가세를 회복하였다.
- 다만 청년,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, 최근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불확실성, 전년 9월(31.2만명 증가)의 기저효과 등이 향후 고용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.
- ④ 정부는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, 취약부문·부진 업종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.
- 우선, ‘청년일자리 회복방안’(8.28일) 등 ’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 사업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준비 및 홍보·사전안내에도 만전을 기한다.
-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업종은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.
- 아울러,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고용여건 개선과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공공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·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- 에너지·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 등을 통한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재정경제부<br><총괄> | 민생경제국<br>인력정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김태웅 (044-215-284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종운 (044-215-2842) |
| 고용노동부<br><공동> | 고용정책실<br>미래고용분석과 | 책임자 | 과 장 | 조원식 (044-202-7260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주봉 (044-202-7256) |

## 1. '26.8월 고용동향 특징

□ 고용률 63.3%(월간 역대 1위), 경제활동참가율 64.6%(월간 역대 1위), 실업률 2.0%, 취업자수 18.4만명 증가

- 15세 이상 고용률 63.3%로 보합(역대 공동 1위, '82.7월~), 15~64세 고용률 70.4%로 +0.5%p 상승(역대 1위, '89.1월~)

\* 고용률(15세+, %): ('25.3/4)63.5 (4/4)62.7 ('26.1/4)61.8 (2/4)63.2 (7)63.3 **(8)63.3**  
고용률(15-64세, %): ('25.3/4)70.2 (4/4)70.0 ('26.1/4)69.3 (2/4)70.1 (7)70.3 **(8)70.4**

- 경제활동참가율 64.6%로 보합(역대 공동 1위, '99.6월~)

\* 경활률(15세+, %): ('25.3/4)64.9 (4/4)64.6 ('26.1/4)64.1 (2/4)65.1 (7)65.0 **(8)64.6**

- 실업률은 2.0%로 보합(<sup>8월 기준</sup>역대 최저 2위, '99.6월~)

\* 실업률(15세+, %): ('25.3/4)2.2 (4/4)2.9 ('26.1/4)3.5 (2/4)2.9 (7)2.6 **(8)2.0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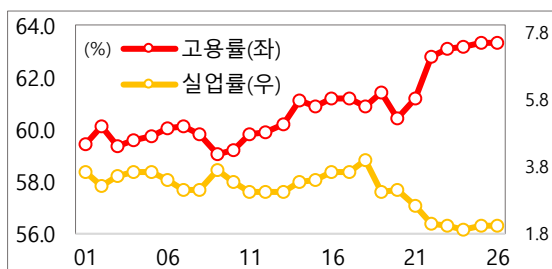
-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8.4만명 증가

\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1.6 (4/4)19.5 ('26.1/4)18.3 (2/4)3.2 (7)10.8 **(8)18.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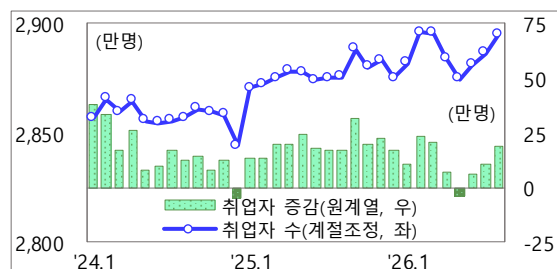
-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대비 8.2만명 증가

\*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(전기비, 만명): ('25.3/4) 2.8 (4/4)△0.2 ('26.1/4)11.7 (2/4)△11.2 (7)5.3 **(8)8.2**

15세 이상 고용률·실업률(원계열, 매년 8월)



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(원계열, 계절조정, 전년대비)



□ (산업)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, 제조업·건설업 감소폭 축소

- (서비스) 지식기반서비스업 개선 등으로 증가폭 확대(29.5→34.5만명)

\* 서비스업 취업자(전년대비, 만명): ('25.3/4)51.1 (4/4)46.7 ('26.1/4)31.5 (2/4)25.4 (7)29.5 **(8)34.5**

\* 공공복지 외 서비스(전년대비, 만명): ('25.3/4)22.0 (4/4)20.9 ('26.1/4)10.8 (2/4)2.9 (7)7.6 **(8)12.7**

- 정보통신(2.2→2.8만)·금융보험업(3.4→2.3만) 증가세 지속, 전문과학(△4.4→△0.5만)은 감소폭 축소(계절조정 전월비는 4개월 연속 증가)
  - \* 정보통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0.4 (4/4)0.9 ('26.1/4)△2.0 (2/4)3.0 (7)2.2 **(8)2.8**  
 금융보험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3.4 (4/4)3.7 ('26.1/4)1.6 (2/4)0.6 (7)3.4 **(8)2.3**  
 전문과학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5.0 (4/4)△1.9 ('26.1/4)△8.8 (2/4)△8.8 (7)△4.4 **(8)△0.5**  
 ↳ 계절조정 취업자(전월비, 만명): ('26.(2)△1.6 (3)2.9 (4)△0.2 (5)2.2 (6)2.3 (7)0.4 **(8)2.3**
- 보건복지(17.3→18.6만명), 공공행정(4.6→3.2만명)은 돌봄수요 증가,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추진 등으로 증가세 지속
  - \* 보건복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29.0 (4/4)26.0 ('26.1/4)25.6 (2/4)22.9 (7)17.3 **(8)18.6**  
 공공행정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0.1 (4/4)△0.2 ('26.1/4)△4.9 (2/4)△0.4 (7)4.6 **(8)3.2**
- 도소매(△0.5→2.1만명), 운수창고(△0.5→2.1만명) 증가전환, 예술여가 증가폭 확대(4.8→7.3만명), 반면 숙박음식(0.2→△6.1만명)은 감소 전환
  - \* 도소매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1.3 (4/4)3.4 ('26.1/4)0.9 (2/4)△4.4 (7)△0.5 **(8)2.1**  
 운수창고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1.4 (4/4)4.2 ('26.1/4)7.6 (2/4)3.4 (7)△0.5 **(8)2.1**  
 예술여가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4.1 (4/4)6.2 ('26.1/4)5.3 (2/4)5.1 (7)4.8 **(8)7.3**  
 숙박음식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.5 (4/4)△0.7 ('26.1/4)△1.5 (2/4)0.0 (7)0.2 **(8)△6.1**
- **(제조)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 포함한 기업심리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6.8→△3.8만명)**
  - \* 제조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6.7 (4/4)△5.2 ('26.1/4)△2.7 (2/4)△9.7 (7)△6.8 **(8)△3.8**
  - \* 일평균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6.1)14.0 (2)49.8 (3)43.9 (4)47.7 (5)60.5 (6)59.4 (7)69.6 **(8)72.5**
  - \* 제조업 BSI(장기평균=100): **(26.3)98.9** (4)95.9 (5)98.0 (6)100.3 (7)98.2 (8)100.5 **(9)102.5**  
 원자재구입가격전망BSI(장기평균=100): **(26.3)125** (4)138 (5)149 (6)141 (7)136 (8)128 **(9)122**
- **(건설) 자재수급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(△5.7→△3.2만명)**
  - \* 건설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0.2 (4/4)△10.6 ('26.1/4)△2.5 (2/4)△3.9 (7)△5.7 **(8)△3.2**
  - \* 자재수급지수: ('25.12)89.4 ('26.1)88.5 (2)91.0 (3)74.3 (4)55.3 (5)63.4 (6)66.3 **(7)80.0**
- **(농림)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(△8.0→△10.9만명)**
  - \* 농림어업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'25.3/4)△13.7 (4/4)△12.4 ('26.1/4)△8.5 (2/4)△10.2 (7)△8.0 **(8)△10.9**

---

□ **(지위·연령) 상용직 비중 57.7%(+0.3%p),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**

---

- **(지위) 상용직 증가폭 확대(7.1→18.0만명)·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, 임시(△5.0만명)·일용직(△1.7만명)은 감소**
  - \* 상용직 비중(8월, %): ('00)29.8 ('05)34.8 ('10)42.3 ('15)48.5 ('20)53.8 ('25)57.4 **(26)57.7**  
 임금근로자 증감(전년비, 만명, 7월→8월): <상용>7.1→18.0 <임시>△4.0→△5.0 <일용>△4.1→△1.7
- 비임금근로자(7.1만명)는 고용有(4.7만명)·無(6.2만명) 자영업자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△3.7만명)는 감소폭 확대
  - \* 비임금 증감(전년비, 만명, 7→8월): <고용有>7.5→4.7 <고용無>7.5→6.2 <무급>△3.2→△3.7

○ (연령) 30·40·50대 고용률 상승, 청년층·60대 이상은 하락

- 청년층 고용률(44.1%, △1.0%p) 하락, 실업률(5.4%, +0.5%p) 상승

| (%, %p) |     | '25년        | 4/4         | '26.1/4     | '26.2/4     | 6월          | 7월          | 8월          |
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고용률     | 청년  | 45.0 (△1.1) | 44.4 (△0.9) | 43.5 (△1.0) | 43.8 (△1.9) | 43.9 (△1.7) | 44.2 (△1.6) | 44.1 (△1.0) |
|         | 20初 | 43.6 (△1.5) | 42.6 (△1.3) | 40.5 (△2.2) | 41.3 (△3.2) | 41.9 (△2.8) | 42.6 (△3.2) | 42.4 (△1.8) |
|         | 20後 | 71.8 (△0.7) | 71.5 (△0.7) | 70.6 (△0.6) | 71.5 (△1.0) | 71.6 (△0.8) | 71.4 (△0.6) | 71.2 (△0.5) |
| 실업률     | 청년  | 6.1 (+0.2)  | 5.7 (+0.1)  | 7.4 (+0.6)  | 7.1 (+0.4)  | 7.0 (+0.9)  | 6.8 (+1.3)  | 5.4 (+0.5)  |
|         | 20初 | 6.6 (+0.3)  | 5.4 (△0.4)  | 8.2 (+0.1)  | 7.7 (+0.2)  | 6.8 (△0.1)  | 7.1 (+1.3)  | 5.2 (△0.1)  |
|         | 20後 | 5.9 (+0.3)  | 5.8 (+0.2)  | 6.9 (+0.6)  | 6.8 (+0.5)  | 7.0 (+1.3)  | 6.7 (+1.3)  | 5.6 (+0.8)  |

- 청년층 쉬었음(39.5만명, △5.1만명)은 7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(☞BOX)

\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8)44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(8)39.5

◇ 일자리 어려움 겪는 '실업자+취업준비+쉬었음' 비중(8월 12.6%, 98.4만명)은 전년비 감소(△0.5%p, △5.8만명), 예년('21~'25년 평균 13.3%)보다 낮은 수준

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·취업준비·실업자 비중(8월 기준, %)

| (8월 기준, 만명, %) |          | 최근 5년 평균<br>( '21~'25) | '21          | '22          | '23          | '24          | '25          | '26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합계(A+B+C)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110.5 (13.3)           | 128.4 (14.7) | 115.2 (13.5) | 103.5 (12.4) | 101.9 (12.6) | 103.7 (13.1) | 98.4 (12.6) |
| 실업자(A)   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20.1 (2.4)             | 24.3 (2.8)   | 22.9 (2.7)   | 18.5 (2.2)   | 16.2 (2.0)   | 18.4 (2.3)   | 19.5 (2.5)  |
| 취준생(B)   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47.7 (5.7)             | 59.6 (6.8)   | 54.1 (6.3)   | 44.6 (5.3)   | 39.7 (4.9)   | 40.7 (5.1)   | 39.3 (5.1)  |
| 쉬었음(C)         | 수(인구내비중) | 42.7 (5.1)             | 44.5 (5.1)   | 38.2 (4.5)   | 40.4 (4.8)   | 46.0 (5.7)   | 44.6 (5.6)   | 39.5 (5.1)  |

※ 청년층은 쉬었음 사유(노동시장적 사유, 경제활동 준비, 일시적 휴식 등),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

\* "쉬었음"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(육아가사, 취업준비, 통학 등)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

\* 20~30대 쉬었음 사유('25.8월 비경활부가조사, %):

(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)31.0 (건강)20.7 (다음일 준비)19.1 (일자리 없음)9.3

- 30대는 인구증가 비해 취업자수 더 크게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

\* 3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0.6 (4/4)0.2 ('26.1/4)0.5 (2/4)0.1 (7)0.0 (8)0.3 **【81.1】**

4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0.7 (4/4)1.0 ('26.1/4)1.2 (2/4)0.8 (7)0.7 (8)0.8 **【80.7】**

- 50대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는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, 60세 이상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하락

\* 50대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 0.1 (4/4) 0.3 ('26.1/4)0.8 (2/4)0.7 (7)1.1 (8)1.3 **【78.8】**

60세+ 고용률 증감(전년비, %p): ('25.3/4) 0.9 (4/4) 0.5 ('26.1/4)0.1 (2/4)△0.3 (7)△0.1 (8)△0.3 **【47.6】**

## 2. 평가 및 대응

□ '26.8월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(<sup>7월</sup>10.8→<sup>8월</sup>18.4만명), 다만 청년, 제조·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부문별 어려움 상존

-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폭 확대
  - 보건복지, 공공행정은 직접일자리 사업 정상추진 등으로 증가세 지속
  - 도소매·운수창고 증가전환 및 예술여가 증가폭 확대, 반면 숙박음식은 전년 기저(<sup>'25.7월</sup>△7.1→<sup>8월</sup>0.0만명) 등으로 감소 전환
-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완화 기대 등 포함한 기업심리 개선, 건설업은 자재수급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
- 청년은 고용비중 높은 숙박음식·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, 다만 쉬었음은 7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
  - \* 청년 쉬었음(만명): ('25.8)44.6 ('26.1)46.9 (2)48.5 (3)40.2 (4)39.1 (5)38.4 (6)35.9 (7)36.7 (8)39.5  
↳ <전년비, 만명> ('25.8)△1.4 ('26.1) 3.5 (2)△2.0 (3)△5.3 (4)△2.4 (5)△1.2 (6)△4.9 (7)△6.9 (8)△5.1
- 9월은 최근 중동긴장 고조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'25.9월 31.2만명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고용증가를 제약할 가능성

□ '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준비 및 홍보에 만전 + 리스크관리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추진 등 통한 일자리 창출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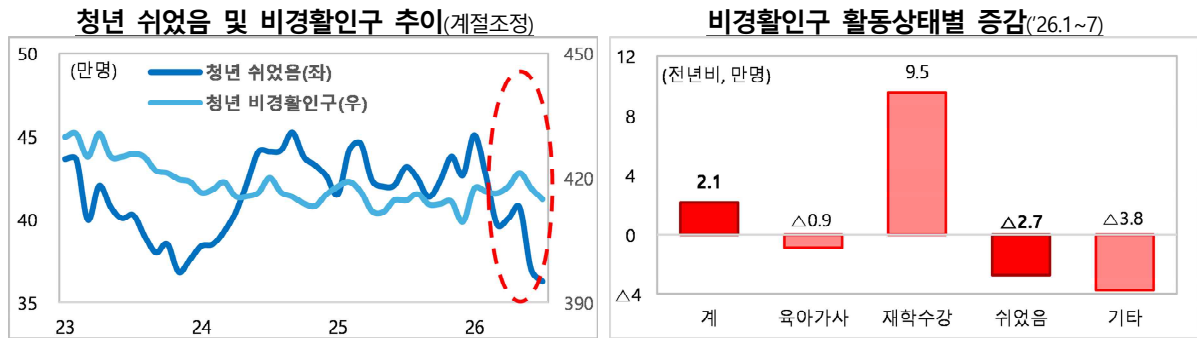
- '청년일자리 회복방안'(8.28) 등 '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일자리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집행준비 및 홍보·사전안내에도 만전
- 제조·건설·농림어업 등 고용감소가 지속되는 업종은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활력 제고, 인력양성 등 대응과제 발굴
- 사회적 편익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공공일자리도 지속 발굴·확대
- 에너지·공급망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신속추진 등 통한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병행

## [BOX] 최근 청년 쉬었음 동향 및 평가

### 1. 최근 청년층(15~29)세 쉬었음 동향

□ 청년 쉬었음은 '24~'25.上까지 큰 폭 증가세 보이다 감소·정체 흐름  
→ '26.2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, 감소폭도 확대 추세

- 다만 쉬었음과는 달리, 청년 전체 비경활인구는 비교적 전년과 유사  
→ 쉬었음 감소가 **비경활** 內 **구성변화**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



### 2. 최근 감소요인 분석 ※ 마이크로데이터 활용하여 분석

- ① (청년인구 감소) 전체 청년인구 감소로 쉬었음 청년도 감소  
(인구감소율('26.1~8월 △1.8%) 비례적으로 적용시 청년 쉬었음 △0.8만명 감소)
- ② (재학·수강 증가) 청년 비경활인구 중 재학·수강인원이 크게 증가\*
  - \* 청년 재학수강인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5.7)△3.8 ('26.1)3.0 (2)5.1 (3)9.4 (4)11.9 (5)13.5 (6)11.9 (7)11.9
  - \* 재학·수강은 ①정규교육기관(학교 등), ②입시학원, ③취업학원·기관으로 구성
  - 인구가 많은 '10~'11년생\*의 재학생(15세) 전입 + 기존 대학생 졸업소요 기간 증가('25년 4년 4.4개월 → '26년 4년 5.7개월) → 재학·수강 전환 가능성
  - \* 연도별 출생아수(만명): ('08)46.6 ('09)44.5 ('10)47.0 ('11)47.1 ('12)48.4 ('13)43.6
  - 청년뉴딜 등 훈련프로그램이 본격집행\*되면서 직업훈련기관·취업학원 수강생 확대 등 쉬었음→훈련유입 조짐도 관측
  - \* K-뉴딜 아카데미(7.3 개시, 3,600명 진행중), 부트캠프(7월부터 4,000명 모집중) 등
  - \* 취업학원·기관(전년비, 만명): ('26.1/4)△1.2 (2/4)0.9 (7)4.0
- ③ (비경활→경활 전환) 최근 청년 취업자 수 보다 청년 경활인구가 더 적게 감소\* → 구직행위 통한 노동시장 유입 시사(통계상 실업으로 분류)
  - \* 청년 취업자수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6.4)△19.4 (5)△25.5 (6)△19.7 (7)△19.1 (8)△14.3
  - 청년 경활인구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6.4)△21.7 (5)△25.0 (6)△17.8 (7)△15.0 (8)△13.2

### 3. 평가 및 대응

□ 최근 청년 쉬었음 감소는 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, 훈련-구직-취업 사다리\*의 앞단계 복원 신호로도 해석될 여지

- \* ①쉬었음 → ②훈련 등 취업준비 → ③구직활동(경활유입, 과도기실업) → ④취업성공
- 다만 청년 취업자수·고용률 등 핵심 체감지표는 아직 부진 → 최근 쉬었음 감소세가 고용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